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첫 번째 유월절 성경: 출애굽기 12장 1-11절

Tag:

- 1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2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 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 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 6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 7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 9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 10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니라 (출12:1-11)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유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가 한 가정의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아담의 죄악과 양의 죽임당함, 양의 가족으로 옷을 삼아 부끄러움을 감추게 하신 하나님, 한자의 옳을 의가 바로 바로 양의 가족으로 옷을 삼게 된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 (義) 아브라함의 선택, 애굽으로의 이주, 출애굽을 통한 가나안 입성.

노예의 신분에서 선민의 신분으로의 변화

1년된 흠이 없는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저주를 피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며 장자를 죽음.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건짐을 당하게 된 사건이 유월절 사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경건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감.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기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모두 귀중하게 여긴다. 유대교는 이제 율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기독교에서는 유월절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적 절기였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예언인 셈이다.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은 유월절이고, 신약성경의 핵심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부활절은 구약의 유월절을 사건과 오버랩되는데, 바로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 전체 유월절을 완성하였고, 바로 그 유월절의 완성을 통해서 부활절이 탄생하였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달력을 새롭게 하시고, 장소를 새롭게 하셨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달력, 서기를 세우시고, 장소를 온 세계로 확장 시키셨다.

첫 번째 유월절 이후로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군대도, 신하도, 왕도 없었다. 오직 모세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만 있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직접 다스리셨다.

첫 번째 부활절 이후로 비로소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었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군대가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유월절은 압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였다.

경제적으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한다.

영적으로 유월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인 부활절은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제 세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제2의 종교개혁에 대한 숙제를 감당해야 한다.

구약에서 이 유월절은 매년 지키는 절기가 되었다. 반드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유월절을 설명하고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양이 되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악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예수님 스스로는 만왕의 왕이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번째 성찬식은 바로 이런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한 신성한 예식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뜻을 기념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

<찬양예배>

제목 : 경건의 유익 성경: 시편 4편

Tag: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
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
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
할지어다 (셀라)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
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
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4:1-8)

1.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누구에게나 심판은 있고, 그 심판은 갑자기 내게 닥친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심판을 당할 때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모든 인생이 당하는 것이다.

-이때 경건이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한다.

-오직 경건한 삶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낸다.

2.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여호와

-죄악과 저주가 휩쓸고 간 자리를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경건한 자가 차지하게 하신다.

-경건한 자들은 미련한 듯 보이고, 있으나 마나한 듯 보이나 결국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경건한 사람을 들어쓰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3. 떨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잠잠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4.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5. 우리에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6. 하나님으로 나의 의를 삼는 자는 기쁘고 행복하다.